



세상을 '無'로 보는 지혜 가득

그것만 내려 놓으라

지명 스님 지음 | 조계종 출판사 펴냄 | 9,800원



의왕 정계사 주지·속리산 법주사 주지를 거쳐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직을 맡았던 지명 스님은 출연 모든 공식 직함을 버렸다. 그리고 이제 뜻 맞는 신도들과 벽들을 지어 날라 완공한 안면도의 안면암, 과천에 있는 안면암 포교당 그리고 과산에 있는 각연사 등에서 법문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게 전부다. 이 책에는 지명 스님이 산에 다시 올라가 기 작전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차곡차곡 써내려 간 54편의 글이 담겨 있다. '중앙일보'·'한국일보'·'불교신문'·'월간 불광' 등에 오랫동안 칼럼을 기고했던 지명 스님은 지금까지 쓴 책들에서 '무(無)로 바라보기'를 주장해 왔다. 이 책에서도 변함없이 무(無)를 강조한다. 하지만 스님이 주장하는 무는 '없음'과 다르다. 스님은 무(無)에 대해 "소유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임시 보관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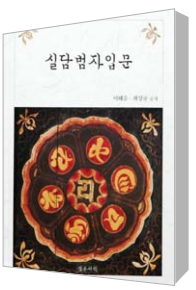
바다를 좋아하는 지명 스님은 죽음과 아주 가까이 접한 상태에서 무(無)를 닦기 위해서 요트를 타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태평양을 횡단한다. 스님은 사납게 요동치는 파도에서 죽음·고독과 맞서는 수행을 하며 삶에 대한 집착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당시에는 스님과 고가의 요트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님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수행자 대부분 산속에 앉아 수행하는 것이 수행인줄 안다"며 "봄빛은 도시에 가나 산속에 가나 꽃을 피우지 않는 것이 없다. 선(禪)과 교(敎)를 가르치지만 불교교리를 보면 편법이란 것이 없다"고 답한다.

스님의 글 전반에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을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극복하는 방법이 자리잡고 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스님의 법문이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편안히 전해진다. 마치 스님이 모든 직함을 버리고 초연히 산으로 되돌아갔듯이 말이다. 이나은 기자

진언다라니 수행자 위한 입문서

실담법자입문

이태승·최성규 공저 | 정우서적 펴냄 | 1만원



인도유럽어족의 고대어인 산스크리트어로 된 <능업주>·<천수경>으로 수행을 해본 자라면 진언다라니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 <실담법자입문>은 평소 진언다라니 수행을 하거나 관심 있는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쓰인 입문서이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로 시작하는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과 같은 진언다라니는 인도의 문자인 범자(梵字)를 그대로 음사해 읽는 것이다. 단순한 문자의 의미를 넘어 수행 대상으로 까지 발전한 진언다라니는 옛 신라·고려·조선시대에도 유행되었다. 하지만 조선시대 강행된 진언집은 표기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가장 큰 이유는 유교를 숭상하며 불교에 억압적인 정책을 펼친 시대상황에서 기인 한다. <실담법자입문>은 이러한 현실에서 실담법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한자음·로마자 표기·한글음·글자의 의미와 함께 실담자모 51자를 따라 쓸 수 있도록 필순을 적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비롯해 각종 진언다라니를 필사 할 수 있도록 해 범자 필사에 뜻을 두고 있는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본서에서는 한국의 범자를 복원하는 최조시도를 선보인다. 이나은 기자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21권 완간, '100질 한정판'

사찰에 깃든 가르침·역사·예술...

한국 불교 사찰 역사에 깃든 민족문화의 혼을 밝힌다.

1992년 설립된 사찰문화연구원원의 첫 번째 사업 <전통사찰총서> 21권의 완결판이다. 강원도의 전통사찰 > 1·2권을 각각 펴냄으로써 비로소 전질을 완간하게 됐다. 1992년에 출간된 강원도 편 이후

전통사찰총서 시리즈와 판형과 편집형태가 달라 이질감을 주던 것에서 2006~2008년 동안 강원도 해당 사찰들을 재 답사해 새롭게 집필한 것이다. 강원도 1편에서는 월정사 등 37개 사찰을 강원도 2편에서는 신홍사 등 20개 사찰을 집대성했다.

<전통사찰총서>는 불교역사에 고이 깃든 민초들의 한과 열이 아로새겨진 푸른 부처의 세계로 안내하는 길라잡이로서 불교문화의 참뜻을 찾아 한데 모은 자료집이다. 이 시대의 발원지를 한데 모아 다음 세대로 하여금 재창조와 도약의 발판이 되겠다는 의도다.

한 사찰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한국불교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유구한 역사에 비해 전해오는 자료가 빈약한 실정에서 현존하는 성보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라도 그러하다.

2005년 4월 대형 산불로 거의 대부분의 전각이 불타버린 낙산사가 곧바로 복원불사가 가능했던 것도 전통사찰총서의 역할이 지대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4월 28일 공중사리탑 보존처리 과정에서 부처님 진신 사리와 장엄구가 출현해 큰 관심을 불러 모으면



서 한층 중창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사찰문화연구원은 1965년 청담 스님과 성철 스님을 조실로故 광덕·법안·법정 스님을 지도법사로, 이기영·서경수·박성배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봉은사에서 출범했다. 사찰의 문화유산을 발굴·정리·집대성해 새로운 문화 형식에 기여하기 위해 힘써

왔다. "내 자신이 지닌 것을 깨는 것이야말로 참 불교다"라고 말하는 이용부 전 문화부 종무관은 사찰문화연구원 실무 책임자로서 "전통사찰총서"는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서 지정한 900여 전통 사찰·사지 등의 역사·인물·문헌·유물·유적과 산천·지역의 특성 등을 발굴해 정리한 포고지"라고 강조한다.

<전통사찰총서>는 국내 유일의 전통사찰 관련 종합책자다. 한국불교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가기 위해 앞장서온 사찰문화연구원은 그간 절판됐던 <강원도의 전통사찰> 1·2권이 발간된 것을 계기로 <전통사찰총서> 21권을 한 질로 묶어 100질의 한정판을 냈다.

한민족의 얼과 전통 문화를 간직하고 계승 발전시키는데 있어 문화와 역사 그리고 고승의 지혜를 위대한 유산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사명의 완결이다.

▲한질=26만원, 솔바람 02)720-0824

가연숙 기자 onmlower@buddhapia.com

'소풍'에 얽힌 추억과 오지 순례·걷기 여행담 담아

우리들의 소풍

김홍성 지음 | 휴먼출판 펴냄 |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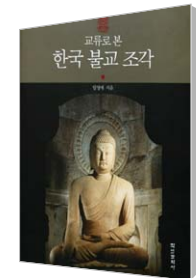
트레킹 전문가로 일해 온 저자가 오지 순례와 걷기 여행담을 들려준다. 또한 사별한 아내 수자타(법명)와 함께 차린 밥집 '소풍'에 얽힌 추억을 비롯해 '소풍'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저자 김홍성은 히말라야 오지와 티베트 고원, 라다크를 여행한다. 그리고 인도 동북부 산악지대인 다르질링에 체류하면서 자연스럽게 보게 된 동상의 주인공이 요리사이기도 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란다.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동상의 주인공은 친근한 시인이며, 쾌활한 여행가인 동시에 조예가 깊은 요리사였다. 이 세

가지 모두에 충실했던 그에게 감동을 받은 저자는 한국에 돌아와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땀다. 그 후 2000년 네 팔 카트만두에 정착해 카트만두의 변화가 뒷목에 소박한 밥집 '소풍'을 열었다.

등그런 앓은뱅이 밥상 세 개로 시작한 '소풍'은 여느 식당에서 찾을 수 없는 손맛과 정취 그리고 사람들이 있다. 네팔의 다른 한국 음식점들처럼 '한국 아줌마'가 직접 손님을 맞지도 않고, 여행이나 쇼핑 정보를 제공하거나 안내를 하지도 않는다. 한국 음식을 팔지만, 네팔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밥상이다. 구수한 밥 냄새가 풍기는 음식점 '소풍'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풋풋한 사연을 그리고 사별한 아내를 향한 마음이 책의 구성구성에 묻어났다. <우리들의 소풍>에는 가식·꾸밈·위선·허풍이 없다. 사별한 아내에 대한 애절함이 문득문득 깔려 나오는 한 편의 사부곡(思婦曲)이면서 순진무구한 절그릇 같은 이야기다. 이나은 기자

한국불교 조각의 근원은 어디?



교류로 본 한국불교 조각

임영애 지음 | 학연문화사 펴냄 | 1만7000원

한국불교 조각의 정체성, 그것이 궁금하다.

실제 석가모니부처님은 한 분이 데 불구하고 시대와 문화마다 부처님의 상호는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천 불 천 탑이 조성된 운주사에는 중생의 마음이 투영된 부처님, 천년 불교의 고도 신라 토함산 자락의 석굴암에는 간다라 양식으로 조성된 왕의 위용을 담은 부처님이 그려졌다.

미술사와 20여 년 인연을 맺어온 필자가 전파와 수용, 즉 교류의 관점으로 불교 조각의 변화에 주목한다. 전래의 과정에 얽힌 '어떻게 변화'하고 '무엇 때문에 변화'했는지에 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접근한 도상 해석서이다.

<교류로 본 한국불교 조각>은 '불교는 인도에서 신라까지 논스름으로 유입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 중간에는 서역이 있고, 중국이 있었으며 육로는 물론 바다도 있었다. 누구에 의해 어떻게 들어왔는지 분명한 매개체를 아는 것으로부터 필자는 한국불교 조각의 근원을 헤아리고자 한다. 전형(典型)과 변형(變型)의 변주(變奏)로 엮은 구법과 전승의 유입사를 치밀하게 추측해 가며 방대한 불교조각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기존의 불교 조각 연구가 도상과 형식을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필자는 기존의 방법론에서 진보해 '불상' 자체의 의미와 성격, 그리고 그 기능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서양미술사 혹은 기독교미술사의 방법론을 원용하며 이를 기반으로 방법론을 성찰하고 다각도의 모색을 새롭게 시도하고자 한다.

'양식과 도상을 중심으로 한 전통 미술사적 해석으로는 불교 조각의 전체상을 파악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불교조각을 입체적으로 대면하고자 함에 있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놓여있는 장소, 제작하고 후원한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연구 방침이다. 교류관계 분석을 통해 한국 고대 불교 조각 연구의 공백을 채우는 필자의 노력이 면밀히 돋보인다.

현재 경주대학교 문화재학부에 재직 중인 임영애 교수는 <서역불교조각사>를 썼으며 <새롭게 읽는 중국의 미술> <동양미술사>를 번역했다. 다수의 불교 조각 관련 논문과 더불어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강원도 문화재전문위원·한국미술사학회 이사·한국미술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있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3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4	인과경	현담	선
5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6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돌	원철
7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	영화실
8	산사의 아름다운 법상	이경애	아름다운 인연
9	절을 기차게 질하는 법	청경	붓다의 마음
10	스님 마음이 불연해요	법륜	정토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얗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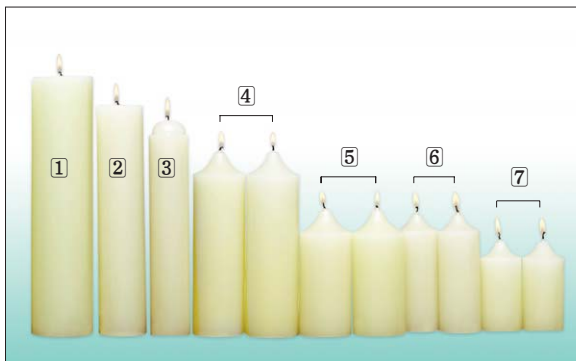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 ①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 ②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 ③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 ④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 ⑤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⑥ 밀납초 1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⑦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⑧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약쑥향 양초

- ① 원기둥 7.4φCm × 29Cm
- ② 돈타레 5.6φCm × 27Cm
- ③ 밀 대 4.7φCm × 25Cm
- ④ 1호 5.9φCm × 20Cm
- ⑤ 2호 5.9φCm × 14Cm
- ⑥ 3호 4.7φCm × 13Cm
- ⑦ 4호 4.7φ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 35cm
- 야광 용초 70φ × 35cm
- 원기둥 마패 7.4φ × 30cm
- 등산용 마패 4.7φ ×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창 양초.net